

## 기데온 투리의 ‘용인성’ 개념과 그 해석<sup>1)</sup>

구하나 · 이영훈\*  
(고려대)

### 1. 서론

기데온 투리(Gideon Toury)의 ‘용인성(acceptability)’은 ‘적합성(adequacy)’과 짝을 이루어 서구 번역(학)사에서 지속되어 온 ‘의역(free translation)’과 ‘직역(literal translation)’의 대립을 비판적으로 극복하려는 일련의 시도들에서 비롯된 개념이다. 따라서 이 개념 쌍은 장-르네 라드미랄(Jean-René Ladmiral)의 ‘원천주의자(sourcier) 對 목표주의자(cibliste)’, 로렌스 베누티(Lawrence Venuti)의

---

\* 교신저자 : 이영훈.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 전자우편: erasme@korea.ac.kr

1) 국내에서 ‘acceptability’ 개념의 번역어로 용인성과 수용성이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우리는 영어의 ‘acceptability’를 ‘용인성’으로 옮기고자 한다. 이는 투리(Toury 1995: 172) 자신이 이 개념을 영어에서도 혼동의 여지가 다분한 acceptance 혹은 reception과 구분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미 비교문학 및 번역학에서는 ‘reception’을 ‘수용’이라고 옮기는 것이 상당히 굳어져 있으므로 ‘수용성’이라는 번역은 개념상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이국화(foreignization) 對 자국화(domestication)’, 율리아네 하우스(Juliane House)의 ‘외현적 번역(overt translation) 對 내재적 번역(covert translation)’ 등에 대응된다고 볼 수 있다. 브루노 오시모(Bruno Osimo) 등의 온라인 번역학 사전에는 ‘용인성’이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

“**Acceptability** : one of the two elements of the dichotomy adequacy / acceptability introduced by the Israeli scholar Gideon Toury. This dichotomy is strictly related to the first kind of translation norms Toury identified, that is to say “initial norms”. As Leuven-Zwart said, by “initial norms” Toury meant “the translator’s (conscious or unconscious) choice as to the main objective of his translation, the objective which governs all decisions made during the translation process”. The dichotomy is based on the translator’s subjection to the norms coming from the prototext or to those coming from the metatext. In the former case, the translation will tend toward adequacy, while in the latter it will tend toward acceptability. In other words, according to Toury’s distinction, adequacy is the adherence to source text norms, while acceptability is the adherence to norms originating in the target culture.”<sup>2)</sup>

한편, 투리의 용인성 개념을 번역평가에 적용하고 있는 말콤 윌리엄스(Malcolm Williams)에 따르면 이 개념은 투리의 정의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그 특성에 대한 합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The definition of acceptability and of the means of determining it are matters of ongoing debate and there is precious little agreement on specifics.” (Williams 2004: XIV).

우리는 이 용인성 개념이 현대 번역학의 주요 연구경향, 즉 목표 지향적인 연구(target oriented researches)들을 대표하는 개념 중 하나로 간주하고, 본고에서 이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시도하려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투리의 용인성 개념을 그의 다양한 저작들에서 먼저 살펴보고 투리의 용인성 개념 정의

2) Bruno Ossimo et al. <<http://www.trad.it/dictionary.htm>>

에 대한 비판을 시도하거나 용인성 개념을 적용하고 있는 몇몇 논저들을 검토할 생각이다. 이를 통해 투리의 용인성 개념 자체가 갖고 있는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과 그 '모호성'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이 논문의 목표이다. 이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사용한 방법은 원전 비평으로 투리와 그 비판자 및 추종자들의 관련 텍스트들에 대한 세밀한 독서를 통해 우리의 입장을 제시하도록 노력할 것이다.<sup>3)</sup>

## 2. 투리의 '용인성' 정의 개관

### 2.1. '용인성' 및 '적합성' 개념의 기원

일반적으로 텔아비브 학파(Tel Aviv school)의 투리가 용인성과 적합성 개념을 최초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4)</sup> 이 두 개념은 투리가 분류하는 번역 행태의 세 규범 (①기본 규범initial norm ②선행 규범preliminary norm ③실행 규범operational norm) 중 '기본 규범'<sup>5)</sup>의 두 하위요소들에 해당한다.<sup>6)</sup> 그런데 과연 '용인성'과 '적합성' 개념은 투리가 가장 먼저 제안한 것일까? 실제로 유진 나이다<sup>7)</sup>(Eugene Nida)나 다른 목표지향적 번역이론가들에게서도 '용인성(acceptability)'이나 '용인가능한 번역(acceptable translation)'에 대한 정의 및 용례가 발견된다.<sup>8)</sup> 그렇지만 '적합성'과 짝을 이룬 '용인성' 개념에 대해서는 투

3) 본 논문에서는 원전 비평의 효율성을 위해 가능한 한 번역 없이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고 그에 대한 우리의 해석을 추가하는 방식이 채택되었다.

4) 브루노 오시모 등의 온라인 번역학 사전에 나타난 '용인성' 및 '적합성' 개념의 정의에도 투리가 이 두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되어있다. "one of the two elements of the dichotomy adequacy / acceptability introduced by the Israeli scholar Gideon Toury." (Bruno Ossimo et al.의 acceptability 및 adequacy 항목)

5) Toury(1995: 56-61) 참조.

6) Toury(1978: 87-89) 참조.

7) Nida의 한국어 표기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지인을 통해 Eugene Nida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니다' 혹은 '나이다'가 모두 가능하나 본인은 '니다'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국내에서 통용되는 표기('나이다')를 따랐다.

8) 나이다, 스키포스 이론, 에지트 (ESIT) 학파에게서의 용인가능한 번역에 대해서는 구

리의 정의가 대체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듯하다.<sup>9)</sup>

한편, 라헬 바이스브로트(Rachel Weissbrod 1998)와 테오 헤르만스(Theo Hermans 1999)는 ‘적합성’과 ‘용인성’이 투리의 독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타마르 이븐-조아르(Itamar Even-Zohar)와의 공동 작업 결과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 같다.

“Norms, more than any other factor, determine the position of translations on an imaginary axis between two extreme possibilities – adequacy and acceptability. According to Even-Zohar and Toury, adequacy means a functional equivalence between source and target text.” (Weissbrod 1998: 3).

“*Acceptability*. Assimilation to the norms and values of the receiving (or ‘target’) culture. For Even-Zohar and Toury it represents one of two theoretical extremes (the opposite pole is ‘adequacy’) to which translations tend. [...]

*Adequacy*. Retention of the features and textual relations of the original in a translation. For Even-Zohar and Toury it represents one of two theoretical extremes (the opposite pole is ‘acceptability’) to which translations tend. (Hermans 1999: 163)

사실, 투리 자신도 ‘적합성’ 개념은 이븐-조하르가 그보다 먼저 사용한 것으로 분명히 밝히고 있다.

“The term ‘adequacy’ in this sense was introduced by Prof. Itamar Even-Zohar a few years ago (cf., e.g., Even-Zohar, 1971: 47, 1975: 43)

하나의 근간 논문(『목표지향적 번역이론과 용인성』, 2010)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9) 창남평(Chang Nam Fung 2010: 261)에 따르면, 투리의 용인성 개념은 폴리시스템 이론가들에 의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수용되었으며 여러 사례연구들에서도 유용하게 적용되었다. 그러나 모든 번역들이 투리가 제시한 ‘적합성’과 ‘용인성’의 연속선상에 놓여있는 것은 아니다. 연구자들에 따라서는 적합하지 않은 번역은 반드시 용인가능하며, 반대로 용인불가능한 번역은 적합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번역들은 적합하지 않을 수도 또한 용인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는 정도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Toury 1980: 116, note 6).

헤르만스도 '적합성'이라는 용어와 그 정의를 이븐-조하르가 히브리어로 처음 사용한 것을 투리가 영어로 옮겨서 계승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 Toury took the notion of adequacy from Even-Zohar, who defined an ‘adequate’ translation as one which “realizes in the target language the textual relationships of a source text with no breach of its own [basic] linguistic system”, as Toury (1995: 56) translates Even-Zohar’s Hebrew.”  
(Hermans 1999: 76).

창남평 역시 '적합성'은 이븐-조하르가 최초로 정의하였으며, 투리는 '적합성'과 대조되는 개념인 '비적합성'을 대체하기 위해 '용인성'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Adequacy” was originally defined by Even-Zohar as the “reproduction of the dominant textual relations of the original” (Even-Zohar 1990: 50). Toury seems to have been the first to use the term “acceptability” to replace “non-adequacy” as the opposite of “adequacy”. (Chang Nam Fung 2010: 260).

위의 여러 증언들 외에도,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용인성' 내지 '용인가능한 번역'의 개념은 이븐-조하르의 영어 저작들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있는 반면, 투리의 저작들에서는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투리, 헤르만스, 창남평의 증언에 따라 '적합성' 개념은 이븐-조하르와 투리의 합작물, 그리고 '용인성' 개념은 투리의 단독 저작물로 간주하고자 한다.

## 2.2. 투리의 용인성 개념의 변천과 표현 양상

투리의 용인성 개념 정의는 1978년에 처음 발견되며 1979년, 1980년, 1995년에 이르기까지 문맥에 따라 표현을 달리하고 있다. 번역은 양 극단의 결합 내지는 절충물이자 양극단 사이에 있는 '중간언어(interlanguage)'이므로 절대적인

적합성, 절대적인 용인성은 있을 수 없으며, 절대적으로 적합한 번역은 오직 원문에서만, 절대적으로 용인가능한 번역은 목표 문화 내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관점은 1978년, 1979년, 1980년의 그의 글들에서 계속 이어진다.

“It is only reasonable to assume, of course, that in practice the decision made will generally be some combination of (or compromise between) these two extremes, such as an adequate translation with certain reservations, or under certain conditions, deriving from the target norms.” (Toury 1978: 89).

“It is the inherent difference between adequacy and acceptability which explains the inevitable occurrence of interlanguage in translation : it is the outcome of the actual “combination of (or compromise between) these two extremes””(Toury, 1978a : 89)” (Toury 1979: 227).

“It is the inherent difference between adequacy and acceptability which explains the inevitable occurrence of interlanguage in translation: it is the outcome of the actual “combination of (or compromise between) these two extremes”(Toury, 1978: 89).” (Toury 1980: 75).

그러나 1980년의 저서를 개정하여 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1995년 판에서는 이 중간언어에 대한 언급이 빠져있다.<sup>10)</sup> 이 점에 대해서 1995년의 저서에서나 그 이후의 글들에서도 투리의 명백한 입장 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1980년과 1995년 사이에 그의 생각의 추이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 우리는 사실 분명히 알 수가 없다. 이렇듯 번역에 대한 그의 생각도 시간의 변화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견되었다면 ‘용인성’에 대한 그의 생각에도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로 인해 자연스레 다른 학자들의 다양한 해석들이 가능했던 것은 아닐까?

사실 그동안 번역학 내에서 이 개념에 대해 언급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인

10) 아울러 앤소니 뎀(Anthony Pym)과 미리암 쉘레진저(Miriam Shlesinger)등이 함께 펴낸 헌정논문집 *Beyond 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 Investigations in homage to Gideon Toury*(2008)에서도 번역을 ‘중간언어’로 보는 관점에 대한 언급은 더 이상 발견되지 않는다.

용되고 있는 1978년(1980년, p. 55의 정의와 일치)과 1995년의 정의들은 우리로 하여금 '적합성'은 ST와 '용인성'은 TT와 연관되어 단순한 대칭관계로 이분화된 것으로 이해하게끔 만들었다.

“Whereas adherence to the norms of the original determines the adequacy of translation as compared to it, adherence to the norms of the target determines its acceptability in the target linguistic and/or literary polysystems as well as its exact position within them.” (Toury 1978: 88-89).

“Thus, whereas adherence to source norms determines a translation's adequacy as compared to the source text, subscription to norms originating in the target culture determines its acceptability.” (Toury 1995: 56-57).

그러나 '적합성'과 '용인성'은 단순한 대칭관계가 아니다. 왜냐하면 '적합성'은 '원문'의 규범에 대한 충실성을 뜻하는 반면, '용인성'은 단순히 '번역문'의 규범에 대한 충실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 시스템을 지배하는 규범에의 충실성을 뜻하는 것으로 '적합성' 보다 광범위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한편 위의 1978년과 1995년의 인용에서 투리는 원문의 규범을 각각 'the norms of the original'(1978년)과 'source norms'(1995년)이라 표현하고 있으며, 1978년에는 'adherence'라 썼던 표현을 1995년의 버전에서는 'subscription'이라 바꾸어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의 말 바꾸기는 이 두 인용부분의 의미에 별다른 혼동을 가져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1978년에는 'in the target linguistic and/or literary polysystems as well as its exact position within them'이라 표현했던 부분을 1995년 본에서는 'in the target culture determines its acceptability'라고 바꾸어 쓴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1978년에는 좀 더 세분화 되어 있는 표현이었다면 1995년의 저서에서는 정의는 더 간결해졌고 한편으로는 더 막연한 정의가 제시되고 있다.

한편 아래의 투리의 인용문에서 밑줄 친 부분과 같이 '적합성(적합한 번역)' 혹은 '용인성(용인가능한 번역)'은 어디까지나 가정된 것이고, 절대적인 '적합성'은 원어 발화에서만 가능하며, 절대적인 '용인성'은 번역어 발화에서만 가능

하다는 진술도 발견된다.

“Since the concept of translation includes not only adequacy and acceptability postulates, but also an equivalence postulate, it is obvious that the variation and changeability of the concept of translation between adequacy and acceptability involve a corresponding variation of translation equivalence. In other words, the study of actual manifestations of translation equivalence (or of translation equivalence as an empirical phenomenon) is tantamount to the study of its intermediate position between absolute adequacy (which is possible only in an SL utterance, ST) and absolute acceptability (which is possible only in a TL utterance).” (Toury 1980: 75).

다른 한편, 우리는 또 다른 그의 글에서 이 용어가 앞선 정의들과는 다소 다르게 정의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가령 1978과 1979년(1980년, p. 75의 정의와 일치)의 그의 연구에서 ‘적합성’과 ‘용인성’은 ‘원문과 똑같이 읽는 것 (reading as the original)’과 ‘또 다른 원문으로 읽는 것(reading as an original)’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Thus, this “value” contains requirements deriving from two essentially different sources, often incompatible, if not diametrically opposed to one another. (In this connection, one might recall the semi-popular formulation of this opposition as being between “reading as an original” and “reading as the original”.” (Toury 1978: 85).

“It is well known that translation involves and reflects a tension between two incompatible postulates : an *adequacy* postulate, dictating maximal representation of a pre-existing text composed in another language, and an *acceptability* postulate, dictating the appropriate position of TT within the relevant target system(s). This opposition is sometimes semi-popularly formulated as being between “reading as the original” and “reading as an original”. Thus, every actual translation occupies a certain position between these two postulated extremes.” (Toury 1979: 227).

그러나 ‘원문과 똑같이 읽는다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원문으로 읽는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렇듯 모호한 표현들은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되었어야 하지 않았겠는가. 위의 인용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투리는 그동안 ‘적합성’과 ‘용인성’을 시종일관 같은 방식으로 정의해온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우리는 앞선 것들과는 또 다른 식의 정의를 발견하게 된다.

아래의 1980년 인용에서 투리는 ‘적합성’과 ‘용인성’을 ‘적합성 가설(an adequacy postulate)’, ‘용인성 가설(an acceptability postulate)’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1981년의 글에서는 이 축들(these poles)’, ‘두 극단들(two extremes)’이라 칭하고 있다. 이렇듯 투리는 표현을 조금씩 달리하여 두 개념에 대한 정의를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t is well known that translation involves and reflects a tension between two incompatible postulates: an adequacy postulate, dictating maximal representation of a preexisting text composed in another language, and an acceptability postulate, dictating the appropriate position of TT within the relevant target system(s).” (Toury 1980: 75).

그런데 이 두 극단과 관련하여 우리는 아래의 인용문에서 밑줄 친 부분과 같이 ‘적합성(적합한 번역)’ 혹은 ‘용인성(용인가능한 번역)’은 어디까지나 가정된 것이고, 절대적인 ‘적합성’은 원어 발화에서만 가능하며, 절대적인 ‘용인성’은 번역어 발화에서만 가능하다는 그의 생각을 다시금 보게 된다.

“Since the concept of translation includes not only adequacy and acceptability postulates, but also an equivalence postulate, it is obvious that the variation and changeability of the concept of translation between adequacy and acceptability involve a corresponding variation of translation equivalence. In other words, the study of actual manifestations of translation equivalence (or of translation equivalence as an empirical phenomenon) is tantamount to the study of its intermediate position between absolute adequacy (which is possible only in an SL utterance, ST) and absolute acceptability (which is possible only in a TL utterance).” (Toury 1980: 75).

앞서 번역을 ‘중간언어’로 간주하는 투리(1980: 55)의 인용문과 특히 상당히 비슷한 생각을 표명하고 있는 1981년의 인용에 따르면, 어떠한 번역도 전적으로 ‘적합성’과 ‘용인성’이라는 양극단적인 모습을 띠 수는 없다. 번역 분석의 주된 목적들 가운데 하나는 바로 실제 번역이 두 축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지 혹은 그 두 극단이 합쳐진 형태로 존재하는지를 살피는 데 있다.

“Since no translation is either entirely “acceptable” (because it owes at least something to the alien adequacy pole) or entirely “adequate” (owing to the obligatory pole of acceptability), one of the main objects of translation analysis is to determine its actual position between these poles, or its “combination of (or compromise between) these two extremes” (Toury 1981: 23).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투리가 ‘적합성’ 과 ‘용인성’이 합쳐진 형태를 일종의 ‘좋은’ 번역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또 다른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는 기술 번역학(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의 이론가로서, 번역의 결과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으로 이미 잘 알려져 있지 않은가? 하지만 아래의 인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투리의 ‘용인성’은 그 자신에게서도 이미 일종의 번역평가 내지는 비평의 기준으로 사용된 바 있는 듯하다. 그러나 여기서 투리가 말하는 평가는 ‘용인성’에 대한 평가이며, ‘적합성’에 대한 평가는 아니므로 기술 번역학의 범주 내에서 그가 말하는 평가는 목표중심적인 성향과 보다 관련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

“Thus, even though it was not stated in so many words, what they were required to assess was not really ‘the translations’, but just one aspect thereof, namely, their acceptability in the target system. Of course, there is nothing basically wrong with rating translations in terms of their acceptability. The point is only that the kind of acceptability thus assessed is not altogether clear, much less so controlled: Is it the translations’ acceptability as texts in the target language - or as translations in(to) it?” (Toury 1979: 229).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그동안 단순히 TT 중심적인 맥락 하에 단순하게 정의된 것으로 간주되어 온 투리의 '용인성'은 그의 글들 내에서만 해도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단순히 목표 문화 중심적인 맥락 하에서는 명확히 해석되기 힘든 모호성을 지닌 표현('또 다른 원문으로 읽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었는데, 하면 번역평가-비평가도 직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맥락 하에 이 개념이 다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투리의 이 복잡한 개념에 대해 다른 번역학자들은 어떤 지적을 하고 있을까?

### 3. 투리의 '용인성' 개념에 대한 비판

본 장에서는 팔마 즐라테바(Palma Zlateva 1990), 앤드류 체스터만(Andrew Chesterman 1997), 테오 헤르만스(Theo Hermans 1999)가 제기하는 '용인성' 개념의 문제들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사실 그들이 주로 문제로 삼은 개념은 '적합성' 개념이나 그와 짝을 이루는 '용인성' 개념도 덩달아 문제시되어 함께 용도 폐기의 대상으로 격하되기까지 한다. 물론, 이 세 사람의 의견에도 다소간의 차이가 발견된다. 시간상으로 즐라테바가 '적합성' 및 '용인성'의 개념에 대해 제일 먼저 가장 강한 반감을 표명한 바 있으며, 체스터만과 헤르만스는 즐라테바의 이런 입장을 근거로 삼아 이 개념 쌍이 상당한 혼동을 야기하므로 그것을 폐기하거나 다른 개념들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였다.

#### 3.1. 팔마 즐라테바

팔마 즐라테바(Palma Zlateva)는 투리의 '적합성'과 '용인성'을 상호 모순되는 개념으로 간주하고, 투리의 개념정의를 따르면 '적합성'과 '용인성'을 동시에 갖춘 번역은 존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적합성'과 '용인성'의 양측으로 형성된 축선(axis)의 오른쪽, 즉 용인성 측에 가까운 번역만이 원전에 대한 메타 텍스트로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Let me note, at the outset, that the terms ‘adequacy’ and ‘acceptability’

as used in this paper do not allow for a statement like the following: ‘A translated text can be located on an axis between the two hypothetical poles of adequacy (source text oriented) or acceptability (target language oriented)’ (Toury, 1980: 34). Such a statement seems to exclude the possibility that a translated text could ever be both adequate to the original and acceptable in the target language, since a +adequate translation will always be a –acceptable one. This logically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the only translated text to satisfy the conditions for being a metatext will be a translated text situated right in the middle of this axis, where we can only have zero adequacy and zero acceptability” (Zlateva 1990: 29).

반면, 즐라테바가 추구하는 진정한 메타텍스트로서의 번역에 대한 입장은 “목표 언어 내에서 번역 텍스트의 용인성은 이 번역의 적합성의 일부만으로 간주되어야 한다”(Zlateva 1990: 29)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는 적절함과 동시에 용인가능한 번역이 존재하며 이 번역을 투리가 사용하는 ‘적합성’의 개념을 빌어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적합성’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투리의 ‘용인성’ 대신에 ‘오역(mistranslation)’을 제안한다.

“I have accepted the basic notions of ‘adequacy’ and ‘acceptability’ but I have tried to prove that they are not polar opposites.

Instead of an axis with ‘adequacy’ and ‘acceptability’ as its poles, I suggest another axis, or rather, a cline with ‘adequacy’ as one pole and ‘mistranslation’ as the other.” (Zlateva 1990: 36).

우리는 투리의 적격성 및 용인성 개념에 대한 즐라테바의 분석 및 해석에 반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우선 그가 직접 인용의 방식으로 투리의 1980년 저서의 34 페이지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해당 문헌의 해당 페이지를 찾아보았으나 발견할 수가 없었다. 게다가 그는 투리에게서 모든 번역은 ‘적합성’과 ‘용인성’이라는 극단적인 두 축 가운데 용인성만을 지향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 사실, 투리는 앞서 용인성의 개념정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78년 이후 줄곧 중간언어로서, 두 축의 조합 혹은 두 극단 사이의 타협의 결과로서

번역을 강조해왔다.

“It is only reasonable to assume, of course, that in practice the decision made will generally be some combination of (or compromise between) these two extremes, such as an adequate translation with certain reservations, or under certain conditions, deriving from the target norms.” (Toury 1978: 89).

“It is the inherent difference between adequacy and acceptability which explains the inevitable occurrence of interlanguage in translation: it is the outcome of the actual “combination of (or compromise between) these two extremes” (Toury, 1978: 89).” (Toury 1980: 75).

끝으로, 즐라테바의 적합성과 오역의 두 축은 메타텍스트로서의 번역을 오직 축선의 왼쪽으로 치우치게 하므로, 적합성과 용인성을 동시에 갖는 번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점에서 즐라테바의 주장은 역으로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

### 3.2. 앤드류 체스터만

다음으로 투리의 적합성 개념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여 ‘용인성’ 개념의 용도 폐기를 주장한 학자로 앤드류 체스터만(Andrew Chesterman)을 꼽을 수 있다. 그는 투리의 ‘적합성’ 개념이 지니고 있는 모호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The choice of the source language as initial norm leads to a translation that is “adequate”, and the choice of target language norms to one that is “acceptable”. (This use of the term “adequate” has been adopted by some scholars but is avoided by others on account of its ambiguity: still others use “adequate” to mean what Toury means by “acceptable”. I shall henceforth avoid the term.)” (Chesterman 1997: 64).

위의 인용에 따르면, ‘적합한(adequate)’이라는 용어의 투리식 사용을 채택한 학자들도 있으나, ‘적합한(adequate)’이라는 용어가 투리가 말하는 ‘용인가능

한(acceptable)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에 이러한 모호성을 근거로 이 용어를 기피하는 학자들도 있다. 체스터만도 마찬가지로 이유로 투리식의 ‘적합성’ 용어 사용을 포기한다. 비록 용어로서의 용인성 개념에 대한 그의 명확한 입장을 알 수 없으나, 체스터만에게는 ‘용인성’도 똑같이 폐기 대상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이처럼 투리식의 용어 사용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나타낼 뿐 거기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점이 체스터만의 투리에 대한 비판이 갖는 한 계로 지적될 수 있다.

### 3.3. 테오 헤르만스

테오 헤르만스(Theo Hermans) 역시 앞서 살펴본 체스터만과 마찬가지로 투리의 ‘적합한 번역(adquate translation)’ 개념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그는 투리가 언급하고 있는 ‘적합성’과 ‘용인성’을 개념과 용어의 차원에서 접근하여 공통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Its most problematic aspect concerns the polar alternatives ‘adequacy’ and ‘acceptability’ mentioned under the ‘initial norm’ The problems are conceptual and terminological.” (Hermans 1999: 76).

헤르만스의 생각에 따르면 일단 번역이 존재하는 양 극단을 뜻하는 이 두 단어는 투리에 의해 표준화된 방식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리의 추종자들의 연구에서도 혼란스러운 경우가 발견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헤르만스는 투리의 두 용어를 폐기하고 그 대안으로 ‘원천-지향적’과 ‘목표-지향적’, 혹은 ‘전망적’과 ‘회고적’ 식의 구분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Another objection to the terms ‘adequate’ and ‘acceptable’ is simply that they are unfortunate because hopelessly confusing, as already mentioned in Chapter 5. Not only are both terms frequently used in their standard sense, but even writers following Toury’s lead have been led astray (Zlateva 1990 is one instance). I share the reservations which Andrew Chesterman (1997: 64) expressed in this respect, and will avoid the terms. If alternatives are required, we could replace the pair ‘acceptable’ versus

'adequate' with 'target-oriented' versus 'source-oriented', 'prospective' versus 'retrospective' or a similar set." (Hermans 1999: 77)

헤르만스가 제시한 대안 표현들 가운데 후자는 학술 개념으로 사용되기에는 함의가 불명확하며, 첫 번째로 제시한 '원천-지향적' 과 '목표-지향적'의 구분은 라드미랄의 '원천주의자(sourcier)' / '목표주의자(cibliste)' 구분과 연결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용어의 명확한 의미 내용이 규정되지 않고 있어 대안으로서의 타당성이 문제시될 수 있으며, 추후 이론화 과정을 통해 체계적인 사용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투리의 '적합성' 및 '용인성'의 구분에 대한 비판은 주로 전자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반면 용인성 개념은 그 자체로 비판되지 않았음에도 적합성 개념에 통합되거나 그와 함께 폐기 또는 대체의 대상으로 간주되었다. 1990년대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적합성 및 용인성 구분에 대한 비판에 대해 투리 자신은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투리에게 헌정된 2008년 논문집(Pym et al.)과 그에 포함된 투리의 인터뷰에도 이 구분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나 추가적인 해명이 들어있지 않다. 이것이 투리 자신이 두 개념 축들에 부과된 의미에 초지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인지, 아니면 시효가 다한(?) 두 개념들에 더 이상 관심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이 같은 비판들에도 불구하고, 투리의 두 개념, 특히 용인성은 여러 번역학자들에 의해 원용되고 있다. 이제 서구와 국내의 경우를 나누어 투리의 용인성 개념이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볼 차례이다.

## 4. 투리의 용인성 개념의 해석 및 적용

### 4.1. 서구 번역학에서의 용인성

#### 4.1.1. 안-크리스틴 학스트룀

안-크리스틴 학스트룀(Anne-Christine Hagström)은 은유의 번역 전략을 다룬 저술에서 투리가 사용하는 두 용어, 즉 적합성과 용인성을 유진 나이다가 말하는 '등가(équivalence)' 개념과 직접적으로 연결시켜 검토하고 있다. 학스트룀

(2002: 47)의 설명에 따르면, 나이다가 말하는 ‘형식적 등가’ 및 ‘역동적 등가’는 투리가 말하는 ‘적합성’ 및 ‘용인성’과 상당히 유사하며, 나이다의 두 가지 등가 및 투리의 두 개념 모두 직역, 의역이라는 두 구분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러나 나이다와 투리는 모두 직역과 의역의 오랜 구분을 지나치게 문제를 단순화한 것으로 보고 이를 거부하는 한편 번역의 비 절대적인 특성을 강조한다. 즉, 그들은 모두 두 극단의 혼합 내지는 이들의 조화가 이루어진 상태를 번역이 지향해야 할 것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학스트림의 해석에는 사실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나이다는 일반적으로 ‘반응의 등가’를 지향하는 ‘역동적 등가’를 선호한 학자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아래의 인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나이다는 이 번역방식이 더 정확하게 독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 잘 느끼고 이해할 수 있게 만든다고 말한다.

“Dynamic equivalence in translation is far more than mere correct communication of information. In fact, one of the most essential, and yet often neglected, elements is the expressive factor, for people must also feel as well as understand what is said.” (Nida et Taber 1969: 25).

하지만 학스트림에게 있어 나이다의 형식적 등가/역동적 등가 그리고 투리의 적합성/용인성 모두 그 자체로 추구하기에는 결코 불가능한 번역의 양 극단이며, 오히려 번역이 추구해야 할 방향표인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투리의 경우에는 비교적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역동적 등가’를 선호한 나이다에게는 틀어맞지 않는 해석으로 보인다.

“Il est donc évident que les deux types d'équivalence chez Nida et la traduction acceptable et adéquate chez Toury ne représentent que les pôles extrêmes d'une échelle de traductions possibles. Les deux chercheurs admettent que, étant donné les contraintes inhérentes de la traduction, ces pôles ne sont que des indicateurs de direction, impossibles à atteindre dans leur absolu.” (Hagström 2002: 47)

학스트림은 궁극적으로 투리가 말하는 번역의 두 성향 (적합한 번역 / 용인 가능한 번역) 구분을 번역자의 두 번역 전략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는 동일한 번역 내에서도 이 두 가지 전략이 공존가능함을 주장하며, 은유의 번역 사례를 검토하여 도착 텍스트 내에서 두 번역 변수가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려는 야심을 숨기지 않는다.

“Nous avons également l’ambition de faire une évaluation de l’effet global des stratégies adoptées sur la position du texte d’arrivée vis-à-vis des paramètres traduction *adéquate* et traduction *acceptable*.” (Hagström 2002: 67)

#### 4.1.2. 마티유 기데르

사실 ST 중심 혹은 TT 중심이라는 극단적인 두 기준 하에 구분을 해야 한다면 투리가 말하는 ‘용인성’은 TT의 범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마티유 기데르(Mathieu Guidère 2008: 100-101)의 번역학 개론서에서도 명백히 드러난다. 그 역시 목표텍스트의 범주 하에서 이 개념에 대해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Les normes initiales : à ce niveau, le traducteur choisit d’adhérer soit aux normes présentes dans le texte source, soit aux normes qui prédominent dans la culture cible. L’adésion aux premières détermine l’adéquation de la traduction au texte source, tandis que l’adhésion aux secondes détermine l’acceptabilité de la traduction dans la culture cible.” (Guidère 2008: 100).

현대 번역학의 여러 이론들을 라드미랄의 원천주의자/도착주의자 구분에 충실하여 분류하고 있는 기데르는 투리의 ‘용인성’ 개념을 조르쥬 무냉(Georges Mounin)의 ‘부정한 미녀들(belles infidèles)’, 유진 나이다(Eugene Nida)의 ‘역동적 등가(équivalence dynamique)’ 개념들과 함께 목표문화 중심적인 것으로 간주함과 동시에 이 개념을 번역품질에 대한 접근 방법으로 다루고 있다.

“L’approche cibliste de la qualité : elle part du principe qu’une bonne traduction est une traduction acceptable par le public cible.” (Guidère 2008: 101)

#### 4.1.3. 말콤 윌리엄스

말콤 윌리엄스(Malcolm Williams)도 기테르와 마찬가지로 투리의 ‘용인성’에 대한 정의를 번역의 품질평가와 연결 지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의 이런 생각은 윌리엄스가 투리의 용인성 개념을 원용하여 재공식화한 부분에서 발견된다.

“Acceptability (in translation) : *Quality* of translation in relation to norms originating in the target culture (Toury 1981: 53-69).” (Williams 2004: 159).

그러나 윌리엄스가 정리한 투리의 ‘용인성’은 실제 투리의 정의와는 다소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윌리엄스가 ‘용인성’을 ‘목표문화에서 비롯된 규범과 관련된 번역의 품질’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서 비롯된다. 사실 투리의 저술 중 윌리엄스가 인용한 부분(1981: 53-69)에서는 ‘품질(quality)’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지 않다. 투리는 직접적으로 이를 번역의 ‘품질’과 연관시켜서 생각한 적은 없다. 그러나 아래의 인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투리가 용인성의 평가와 관련되는 진술을 한 적이 있어서, 투리가 말하는 ‘용인성’의 개념을 번역평가와 연관시키는 것이 무리는 아니다.

“Thus, even though it was not stated in so many words, what they were required to assess was not really ‘the translations’, but just one aspect thereof, namely, their acceptability in the target system. Of course, there is nothing basically wrong with rating translations in terms of their acceptability. The point is only that the kind of acceptability thus assessed is not altogether clear, much less so controlled: Is it the translations’ acceptability as texts in the target language - or as translations in(to) it?” (Toury 1979: 229).

아래의 인용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듯이 윌리엄스는 투리의 '용인성'의 정의를 앞서 살펴본 학스트롭이나 기데르와 달리 직접적으로 번역품질평가와 연결 지어 생각하고 있다.

“the definition of acceptability threshold leads us to that of the translation quality standard itself. Only recently has there been any discussion in translation studies of what exactly translation quality standards are.”  
(Williams 2004: XVIII).

그러나 윌리엄스의 생각은 사실 투리의 용인성과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넘어 보다 근본적인 면에서 본다면 심지어 그들의 관점이 서로 상충되는 것으로까지 여겨질 수도 있을 듯하다. 왜냐하면 투리는 어떤 것이 좋은 번역이며, 또한 어떤 것이 나쁜 번역인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에 반대하며 기술적(descriptive)인 번역이론을 추구하고자 한 반면 윌리엄스는 누구보다도 엄격한 품질평가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sup>11)</sup> 특히 가장 최근인 2009년의 글에서 윌리엄스는 번역평가에서의 '용인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있으며, 이는 '용인 가능한 번역'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 아래의 인용에서 잘 드러난다.

“an acceptable translation is one that fully conveys the argument macrostructure of the source text and is therefore free of critical defects.”  
(Williams 2009: 13-14).

따라서 원문의 거시적 논증구조를 '충실히' 옮기는 것을 용인가능한 번역으로 간주하는 윌리엄스의 정의는 원문에 대한 충실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처럼 원문에 대한 '충실성'을 윌리엄스는 '용인성'이라 정의하고 있

11) 윌리엄스(2004)는 번역평가자의 입장에서 실용적인 텍스트의 번역평가에 적용하기에 매우 적합한 명확하고도 엄격한 틀을 제시한다. 그는 텍스트가 출판을 목적으로 번역된 경우는 단지 정보를 전달할 목적으로 번역한 경우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또한 그의 기준들에서 가장 특기할 만한 사항은 각 평가항목마다 가중치를 달리 두어 주요 항목에 평가 점수가 더 많이 반영되게 하는 점이다.

는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투리가 말하는 용인성과 윌리엄스가 말하는 그것은 상호충돌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4.1.4. 베아트리스 로드리게스 로드리게스

윌리엄스와 마찬가지로 번역평가와 직접적으로 연계하여 용인성 개념에 접근하는 베아트리스 로드리게스 로드리게스(Beatriz Rodríguez Rodríguez 2007)의 연구에서도 우리는 투리의 ‘용인성’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을 찾을 수 있다. 앞서 살펴 본 윌리엄스가 이 개념을 번역평가자의 판단 기준으로 몰아갔다면, 로드리게스 로드리게스는 독자의 판단과 연결 짓는다. 이 점에서 윌리엄스와 로드리게스 로드리게스의 차이가 발견된다. 즉, 로드리게스 로드리게스는 독자를 번역이 적절한 지(appropriate) 여부를 판단하는 사람으로 간주한다.

“Acceptability. This term is proposed by Toury to refer to the relation of the translation with the target system (1995: 57). In his view, the text will be appropriate whether the reader accepts it. From my point of view, this parameter is closely related to the figure of the ‘reader’ (Rabadán 1991: 79), which has been proposed in some approaches because translation quality appears to depend on the reader’s reaction to the text.” (Rodríguez Rodríguez 2007: 58).

이 때 독자들이 생각하는 용인성, 즉 그들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번역은 투리가 말하는 ‘적합성’과 ‘용인성’의 중간에 위치하는 번역이라 말한다.

“Norms determine the function of the translated text which should be compared with that of the source text. In addition to this, they are supposed to establish the adequacy or acceptability of the translation (Toury 1995: 56-57). A degree of acceptability from the reader of the target text seems always required in order to acquire an appropriate translation. By contrast, adequacy focuses on the source text, and involves the norms and rules of the source text. An appropriate translation must lie in the middle position between the two possibilities.” (Rodríguez Rodríguez 2007: 28).

그러나 여기서 로드리게스 로드리게스의 생각은 너무 이상적인 듯하다. 왜냐하면 실제 번역은 결코 이 두 극단들 사이에서 정확히 중간에 놓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의 견해는 양극단 사이에 위치하고 있거나 그 두 극단이 합쳐진 형태로 존재하는 번역을 적합한 번역으로 암묵적으로 간주하는 투리의 다음 견해와 상당부분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It is only reasonable to assume, of course, that in practice the decision made will generally be some combination of (or compromise between) these two extremes, such as an adequate translation with certain reservations, or under certain conditions, deriving from the target norms.” (Toury 1978: 89).

한편, 로드리게스 로드리게스에게 있어 번역은 목표 문화에서 전적으로 ‘용인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가정되고 있는데, 이는 번역이 목표 시스템에 새로운 정보나 이국적인 형태를 도입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원본에 대해 전적으로 ‘적합한’ 번역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또한 번역이 (목표)문화의 규범을 위해 출발 텍스트의 구조를 바꾸는 일이 빈번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A translation is supposed to be never entirely acceptable to the target culture because it always introduces new information and defamiliarizing forms to that system, nor is any translation entirely adequate to the original version, for the cultural norms frequently produce shifts from the source text structures.” (Rodríguez Rodríguez 2007: 28)

우리는 이와 같이 어떠한 번역도 전적으로 ‘적합성’과 ‘용인성’이라는 양극단적인 모습을 띠 수는 없다는 생각은 투리에게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Since no translation is either entirely “acceptable” (because it owes at least something to the alien adequacy pole) or entirely “adequate” (owing to the obligatory pole of acceptability), one of the main objects of translation analysis is to determine its actual position between these poles,

or its “combination of (or compromise between) these two extremes”  
(Toury 1981: 23).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학스트림, 기데르, 윌리엄스, 로드리게스 로드리게스는 모두 번역평가와 직·간접적인 연계 하에 ‘용인성’의 개념에 접근하고 있다. 사실, 기데르가 이 개념을 번역품질에 대한 접근 방식으로 분류하는데 그친 반면, 학스트림은 용인성을 적합성과 마찬가지로 번역의 변수로 간주하여 도착텍스트 내에서의 그 효과를 가늠해보려 하고 있으며, 윌리엄스와 로드리게스 로드리게스는 이 개념을 실제 번역평가 작업의 주요 기준으로 발전시켜 다루고 있다. 한편, 조금 과장하여 말하자면, 학스트림과 기데르가 번역자의 관점에서 용인성 개념에 접근한다면, 윌리엄스는 번역평가자의 입장, 그리고 로드리게스 로드리게스는 번역작품의 독자의 입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본래 투리의 ‘용인성’은 그것의 배경이 되는 목표문화를 총체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반면, 번역자, 번역 독자, 번역평가자 등의 주체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점에서 이 네 연구자가 투리의 용인성 개념을 확대 해석하여 원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4.2. 국내 번역평가 및 번역비평 연구에서의 용인성의 개념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서구 번역학에서 ‘용인성’의 개념은 투리의 정의를 번역비평 내지 번역평가와 밀접한 관련시켜 연구된 바 있다. 그렇다면 이 개념에 대한 국내 연구 동향은 어떠한가? 국내 번역학 연구에서는 2000년대에 들어서 ‘acceptability’ 개념이 언급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 이 용어에 대응하는 통일된 한국어 번역어를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최근 서구 번역학에서의 연구 경향과 그 맥을 같이하여 이 개념에 대한 연구가 번역평가 내지는 비평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의 번역학에서는 ‘용인성’에 대한 세 개의 정의들이 발견되었으며, 그들을 시대 순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 이상원의 「출판 번역 비평과 번역 규범」(2004), 『한국 출판 번역 독자들의 번역평가 규범연구』(2006), (2) 전현주의 「번역 텍스트의 용인성 : 번역 비평가의 관점을

중심으로」(2006), 「번역비평에 대한 비평적 분석」(2007), 『번역비평의 패러다임』(2008), (3) 「프랑스 명작소설 번역평가 연구단」(2009). 특히 이들 가운데 가장 최근의 연구에서는 '용인성'이 번역을 평가하는 기준틀로도 사용될 수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다.<sup>12)</sup>

#### 4.2.1. 이상원

우선 이상원의 경우를 살펴보자. 「출판 번역 비평과 번역 규범」(2004)에서 그는 투리와 체스터만의 번역 규범 개념을 바탕으로 용인성을 다섯 가지 번역 규범 분석틀 가운데 첫 번째 기준으로 제시한다.<sup>13)</sup> 저자에 따르면, 분야별 전문가와 일반 독자로 나누어 출판 번역 비평을 분석해본 결과, 첫 번째 기준인 '적절성 對 수용가능성'에서 각 분야 전문가는 적절성을, 일반 독자는 수용가능성을 더 많이 지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외의 나머지 네 항목들에 대한 연구 결과를 모두 종합해 본 결과 적절성이 중시되는 경우 형체 규범과 관련된 지적이 많고 수용가능성을 우선하는 비평이라면 텍스트 언어 규범에 해당하는 내용이 많았다고 할 수 있었다.

“본고는 Toury(1995)와 Chesterman(1997)의 번역 규범 개념을 바탕으로 다섯 가지 번역 규범 분석틀을 추출하여 출판 번역 비평을 분석하였다. 분야별 전문가와 일반 독자로 나누어 본 결과 적절성 대(對) 수용가능성에서 각 분야 전문가는 적절성을, 일반 독자는 수용가능성을 더 많이 지적하고 있었다. 번역 정책과 직접성이라는 번역 규범에 해당하는 번역 비평은 상대적으로 드물었다.

형체 규범과 텍스트 언어 규범은 적절성 대 수용가능성이라는 첫 번째 규범과 밀접히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절성이 중시되는 경우 형체

12) 4.2.장에서 우리는 『영미명작, 좋은 번역을 찾아서』로 대표되는 영미문학연구회 번역평가사업단(이하 영미연)의 연구를 검토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영미연의 연구는 그 연구 규모나 사회적 파장으로 보건대 언어권에 상관없이 국내 번역평가의 대표적 사례로 언급되어야 할 연구임에는 틀림없으나 평가의 기준으로 '충실성'과 '가독성'을 삼음으로써 '용인성'을 직접적인 평가 기준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검토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3) 이상원(2004)이 제시하는 다섯 가지 번역 규범 분석틀은 다음과 같다 : ①적절성 對 수용가능성 ②번역 정책 ③직접성 ④형체 규범 ⑤텍스트 언어 규범.

규범과 관련된 지적이 많고 수용가능성을 우선하는 비평이라면 텍스트 언어 규범에 해당하는 내용이 많았던 것이다.”(이상원 2004: 54).

이처럼 ‘수용가능성’이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용인성’에 대한 언급이 이루어지는 이상원의 연구에서 사실 이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그의 연구에서 이 개념은 ‘가독성’과 상당히 유사한 의미로 이해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저자에게 문의한 결과 이 둘이 비슷한 의미로 쓰인 것이라는 답변을 들은 바 있다.

#### 4.2.2. 전현주

앞서 이상원과 더불어 전현주 역시 『번역 비평의 패러다임』(2008: 22)에서 기존의 번역비평에 대한 메타비평을 수행하는 가운데 ‘번역 텍스트의 용인성’을 ‘번역 텍스트의 내적·외적 신뢰성의 확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는 ‘번역 본의 용인성’을 점검하기 위해 투리를 원용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투리의 ‘용인성’ 이론을 번역 텍스트의 ‘내적 용인성’과 ‘외적 용인성’으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번역 비평 텍스트의 내용을 분석하는 주요 프레임은 투리의 ST와 TT의 비평방식과 관련된 이론을 참고하였다. 그리고 번역 비평 텍스트에서 비평가들의 비평전략을 평가할 때 평가적 요소를 텍스트의 내·외적인 용인성으로 나누어 살펴본 동기 역시 투리의 번역에 대한 ‘용인성 이론’을 원용하였다.” (전현주 2008: 30).

전현주(2008: 149-64)에 따르면, 번역비평가들은 번역문이 내적인 용인성을 갖추고 있는가를 점검하기 위해 어휘, 문장·문단, 역자의 부주의로 인한 첨가, 누락, 오·탈자 등이 번역문에서 나타났는지에 주목하며, 외적인 용인성을 갖추고 있는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번역문의 출간 이력, 역자의 작품에 대한 배경 지식, 번역 전략을 중심으로 살핀다. 아래의 <표1>은 번역텍스트가 내적·외적인 용인성을 갖추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요소들이다.

|             |  |   |
|-------------|--|---|
| 평가주체        | 비평가의 태도, 전문성, 서술방식   |   |
| 평가방법        | ST:TT의 비교 범위 및 비평방식, 평가기준(충실성, 가동성), 평가방식  |   |
| 텍스트<br>외적요소 | ST 및 TT의 작가 및 작품의 위상, ST출전, TT출간이력(중역, 표절본, 발췌본 등 점검), 번역환경, 번역가의 작품에 대한 배경지식, 번역전략, 독자반응, 번역가후기, 역주 등 |   |
| 텍스트<br>내적요소 | 어휘적인 면   | 어휘, 고유명사, 방언, 관용어, 표기법, 한자어, 외래어 사용 등                     |
|             | 의미적인 면   | 저자의 의도, 수사법 등   |
|             | 통사적인 면   | 문법(시제, 어순, 수식, 대명사 등), 문장부호, 번역가의 부주의(첨가, 누락, 탈자, 오식 등)   |
|             | 화용적인 면   | ① 문체: 어투(구어체, 문어체, 고어투, 현대어투, 대우법), 우리말 어법, 서술 기법 등       |
|             |  | ② 결속성: 단락처리, 접속사, 호응관계, 문맥, 등장인물 간의 관계, 인물이나 대상 묘사의 일관성 등 |
| 형식적인 면      | 가로쓰기(세로쓰기), 문단 나누기(혹은 합치기), 역주 등   |   |

〈표1〉 번역 비평 텍스트에 나타난 '번역 텍스트의 용인성' 점검 요소

이처럼 전현주는 투리의 '용인성'을 둘로 구분하여 각각을 세분화 하고 있으므로 투리의 개념에서 출발하여 이를 보다 방법론적으로 심화시켰다고 볼 수 있으나, 아쉬운 점은 이러한 개념 분화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 4.2.3. 프랑스 명작소설 번역평가 연구단

고려대학교 '프랑스 명작소설 번역평가 연구단'은 번역평가의 단계를 ①예비적 고찰, ②토대평가, ③심화평가, ④종합평가의 넷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크게 '용인될 수 없는(non acceptable) 불일치'와 '용인될 수 있는(acceptable) 불일치'로 번역의 예들을 구분하여 각각을 토대평가와 심화평가를 위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토대평가의 기준들은 원문과 번역문 사이의 '용인될 수 없는 불일치', 즉 오류를 파악한다는 의미에서 약호 'N'로 표시되며, 이와 달리 텍스트의 심화평가의 기준들은 원작의 의미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용인될 수 있는 불일치'를 파악한다는 의미에서 약호 'A'로 표시된다.

“서로 다른 관점에서 번역텍스트를 바라보는 토대 평가와 심화 평가는 각기 다른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한다. 토대 평가의 기준들은 ST와 TT 사이의 ‘용인될 수 없는’(Non acceptable) 불일치, 즉 오류를 파악한다는 의미에서 약호 ‘N’으로 표시하며, 이와 달리 텍스트의 심화평가의 기준들은 의미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불일치, 즉 관점에 따라 오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들을 대상으로 하며 보다 적극적으로는 번역자의 선호도나 번역 전략을 반영하는 ‘용인될 수 있는’(Acceptable) 불일치를 파악한다는 의미에서 약호 ‘A’로 표시한다.” (이영훈 외 2009: 28).

토대평가와 심화평가의 기준들과 세부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       |    |             |      |
|-------|----|-------------|------|
| 누락 오류 | N1 | 어휘 누락       | N1-1 |
|       |    | 구, 절, 문장 누락 | N1-2 |
| 첨가 오류 | N2 | 어휘 첨가       | N2-1 |
|       |    | 구, 절, 문장 첨가 | N2-2 |
| 통사 오류 | N3 | 지시 관계 오류    | N3-1 |
|       |    | 구문 오류       | N3-2 |
| 의미 오류 | N4 | 어휘 의미 오류    | N4-1 |
|       |    | 문장 의미 오류    | N4-2 |

〈표2〉 토대평가 기준표

|          |    |                |      |
|----------|----|----------------|------|
| 번역문의 완결성 | A1 | 언어적 완결성        | A1-1 |
|          |    | 논리적 완결성        | A1-2 |
| 어휘 변조    | A2 | 어휘 의미장의 변조     | A2-1 |
|          |    | 어휘 요소의 생략 및 부가 | A2-2 |
| 문장 변조    | A3 | 문장 형태 변조       | A3-1 |
|          |    | 문장 표현 변조       | A3-2 |
| 문화어 처리   | A4 | 치환에 의한 문화어 처리  | A4-1 |
|          |    | 설명에 의한 문화어 처리  | A4-2 |

〈표3〉 심화평가 기준표

이와 같이 본 연구단이 상정한 ‘용인성’은 투리가 말한 것보다 광범위한 것

으로 번역학에서 두 개의 큰 축인 '충실성'과 '가독성'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프랑스 명작소설 번역평가 연구단'은 원문이 아닌 번역문을 평가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으며, 번역자가 원본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낸다는 점에서 기존의 출발어 중심주의자들의 입장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단에서는 '용인될 수 있는(acceptable)' 번역의 관점뿐만 아니라 '용인될 수 없는(non acceptable)' 번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번역평가 이론들과 차별성을 보인다.

## 5. 결론

투리의 '용인성' 개념은 1978년에 시작해서 1995년까지 개념 폭이나 표현 양상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그의 '적합성'과 관계된 모호성에 대해서 몇몇 학자들이 비판한 바가 있고, 특히 '용인성' 내지는 '용인가능한 번역'의 개념을 투리 자신이 각기 다르게 적용한 사례들이 발견되었다. 그 결과 투리의 '용인성'의 개념이 엄밀하게 말해 내적인 단일성이나 일관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점에서 이 개념의 모호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고, 해석상의 갈등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성 개념은 투리의 기술번역학 이론뿐만 아니라 현대 번역학의 목표지향적 경향을 규정짓는 주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투리는 기술번역학의 경향 하에 번역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검토 결과 그 자신 역시 일종의 평가 내지는 비평의 기준으로 '용인성'을 사용하는 경우가 발견되었다. 또한 오늘날의 국내외 번역학 연구에서도 투리의 이 개념이 번역평가와 직간접적인 연관을 맺으며 원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우리는 이 개념이 목표 중심적인 번역학 이론가들의 연구에서도 언급되고 있는 경우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투리의 용인성 정의와 그에 대한 직접적인 해석들에서 더 나아가 서구 번역학 내에서 이 개념이 어떻게 정의되고 있으며 또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보다 더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우리는 '용인성'

개념이 묵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다른 번역학 이론들(가령 나이다, 스키포스, 에지트학과의 이론 등) 뿐만 아니라 각종 번역평가 이론들 내에서 이 개념을 검토하는 것으로 본 연구 주제를 확장시키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구하나 (2010) 「목표지향적 번역이론과 용인성」, 『통역과 번역』 12(2): 근간.
- 이상원 (2004) 「출판 번역 비평과 번역 규범」,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 6(2): 39-57.
- 이상원 (2006) 『한국 출판 번역 독자들의 번역평가 규범 연구』, 파주: 한국학술정보.
- 이영훈 외 21인 (2009) 『2008년도 기초연구과제지원사업 (인문사회분야) “프랑스 명작소설 번역평가” 1차년도 연차보고서』, 한국학술진흥재단.
- 전현주 (2006) 「번역 텍스트의 용인성: 번역 비평가의 관점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7(2): 179-205.
- \_\_\_\_\_ (2007) 『번역비평에 대한 비평적 분석』, 세종대 박사 논문.
- \_\_\_\_\_ (2008) 『번역비평의 패러다임』, 파주: 한국학술정보(주).
- Chesterman, Andrew (1997) *Memes of Translation*, Amsterdam: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Even-Zohar, Itamar (1971) *Mavo le-te'orya šel ha-tirgum ha-sifrut* [Introduction to a Theory of Literary Translation] (Tel Aviv: Tel Aviv U). [Unpublished Ph.D. Thesis. English summary: I-XX.]
- Even-Zohar, Itamar (1975) “‘Spleen’ le-Baudelaire be-tirgum Lea Goldberg: Le'ofi ha-hakhra'ot be-tirgum šira” [Decisions in Translating Poetry], *Ha-sifrut/Literature* 21: 32-45.
- Even-Zohar, Itamar (1990) ‘Polysystem Studies’, *Poetics Today* 11(1): 1-268.
- Gambier, Yves and Doorslaer, Luc van (2010) *Handbook of translation studies*,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Guidère, Mathieu (2008) *Introduction à la traductologie*, Bruxelles: De Boeck.

- Hagström, Anne-Christine (2002) *Un miroir aux alouettes? - Stratégies pour la traduction des métaphores*, Uppsala: Uppsala Universitet.
- Hermans, Theo (1999) *Translation in systems: descriptive and system-oriented approaches explained*, Manchester: St. Jerome.
- Ladmiral, Jean-René (1986) 'Sourciers et ciblistes', *Revue d'esthétique* 12: 33-42.
- Nida, Eugene A. and Taber, Charles R. (1969)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Leiden: E.J. Brill.
- Osimo, Bruno et al., *Dictionary of translation science with terms of semiotics, textology, linguistics, stylistics*. <<http://www.trad.it/dictionary.htm>>
- Pym, Anthony, Shlesinger, Miriam and Simeoni, Daniel (2008) *Beyond 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 Investigations in homage to Gideon Toury*,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Rodríguez Rodríguez, Beatriz (2007) *Literary Translation Quality Assessment*, München: Lincom Europa.
- Rabadán, Rosa (1991) *Equivalencia y traducción. Problemática de la equivalencia transléctica inglés-español*, León: University of León.
- Rosales Sequeiros, Xosé (1998) 'Degrees of acceptability in literary translation', *Babel* 44(1): 1-14.
- Toury, Gideon (1978) 'The nature and role of norms in literary translation', *Literature and translation : new perspectives in literary studies*, James S. Holmes, José Lambert, Raymond Van den Broeck (eds.), Leuven: Acco: 83-100.
- Toury, Gideon (1979) 'Interlanguage and Its Manifestations in Translation', *Meta* 24(2): 223-231.
- Toury, Gideon (1980) *In search of a theory of translation*, Tel Aviv: The Porter institute for poetics and semiotics, Tel Aviv University.
- Toury, Gideon (1981) 'Translated Literature: System, Norm, Performance: Toward a TT-Oriented Approach to Literary Translation', *Poetics Today* 2(4): 9-27.

- Toury, Gideon (1995), *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 and beyond*, Amsterdam;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Weissbrod, Rachel (1998) 'Translation Research in the Framework of the Tel Aviv School of Poetics and Semiotic', *Meta* 43(1): 35-45.
- Williams, Malcolm (2004) *Translation Quality Assessment : An argumentation-centred approach*, Ottawa: University of Ottawa Press.
- Zlateva, Palma (1990) 'Translation: Text and Pre-Text 'Adequacy' and 'Acceptability' in Crosscultural Communication', *Translation, history, and culture*, London and New York: Pinter, 29-37.

[Abstract]

**Gideon Toury's notion of acceptability and its interpretations**Koo, Hana · Yi, Yeong-Houn  
(Korea University)

Unlike its opposing concept, “adequacy”, “acceptability” is a concept that was first defined in translation studies by Gideon Toury. Here, adequacy can be connected with the source text (ST) whereas acceptability may be related to the target text (TT). We can therefore consider these concepts as a binary concept of translation studies, along with ‘overt vs. covert’, ‘sourcier vs. cibliste’, ‘foreignizing vs. domesticating’, etc. On the one hand, the notion of acceptability has been criticized by Palma Zlateva, Andrew Chesterman and Theo Hermans because of its ambiguity. On the other, this concept is interpreted differently by Mathieu Guidère, Malcolm Williams, and Beatriz Rodríguez Rodríguez in the Occident, and by Sang-Won Lee, Hyunju Jeon, and the Research Group of Korea University for the Evaluation of Korean Translations of French Great Literature. We will argue that these conflicts of interpretation derive mostly from the ambiguity of Toury’s very definition of acceptability. We can therefore say that, as a concept, it is rather problematic and controversial than clear. However, acceptability is one of the main concepts representing the trend of TT-oriented research today, so we must continue to examine it in detail. To find out the reasons for the diversity of interpretation of Toury’s acceptability, it is necessary to study how acceptability is used in other theories in translation studies and in the theories of translation evaluation that make active use of this notion.

▶ Key Words: Acceptability, Adequacy, Gideon Toury, Initial norms, Conflicts of Interpretation

구하나(제1저자)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과 박사과정

sepihana@korea.ac.kr

관심분야: 번역평가, 번역학사

이영훈(교신저자)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

erasme@korea.ac.kr

관심분야: 번역평가, 번역수사학

논문투고일: 2010년 10월 31일

심사완료일: 2010년 11월 28일

게재확정일: 2010년 11월 30일